

“12·3 비상계엄 후 한국 당면과제는 ‘민주주의 복원’”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12·3 내란 사태와 한국사회’ 좌담회

지병근 교수 ‘윤석열 쿠데타’ 주제 “정치 개혁·새 민주주의 필요”
케이팝 팬덤 참여·응원봉 등은 대중문화의 사회적 역할 보여줘

‘12·3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으며,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엄령 선포의 의도와 주도 세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일 오후 교내 본관 3층 아름마루에서 ‘12·3 내란 사태와 한국사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내란 사태가 드러낸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대학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의 쿠데타와 K-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3 내

란 사태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엄령 선포의 의도와 주도 세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 교수는 “12·3 쿠데타는 명태균 폭로 이후 윤석열이 탄핵 정국을 벗어나고 행정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동원의 결과”라며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구축한 1987년 정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징적 정치공간으로서의 광



20일 오후 조선대학교 본관 3층 아름마루에서 광주·전남 지역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토론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주성학 기자

화문과 여의도(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인문학박사와 교수) ▲5·17계엄과 12·3계엄, 그리고 군대(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케이팝 팬들이 국

회로 간 까닭은?(최유준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교수) ▲디지털 부족주의와 음모론(박선희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비상계엄 상황 하 중국

음모론과 트럼프 20 시대 한국 외교의 딜레마(김재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성학 기자

‘7명 사상’ 화정아이파크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일부는 ‘집유’...경영진은 ‘직접 책임 없다’ 판단 무죄 선고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여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3곳(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가현건설산업(이하 가현)·유건축사무소(이하 유축))과 업무상과실사자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7명(현산 10명·가현 4명·유축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조 기 해체에 참여한 현산 소속 2명, 가현 소속 1명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관련으로 기소된 현산과 가현 소속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현산 소속 1·2 공구 총책임자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감리회사 광장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산과 가현, 광장 각 법인은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체 피고인 중 6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현산 경영진 2명과 가현 대표이사 1명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강도 불량과 관련해 기소된 현산 소속 피고인 3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3개의 참사 원인 중 동바리 조 기 해체와 검토 없던 공법 변경(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은 인정되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불량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01동 30층부터 23층까지 순차적으로 붕괴해 7명이 죽어 나다쳤다. /안재영 기자

“탄핵 반대 포함 인권위 안전 철화물” 광주인권증진시민위 촉구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용이 포함된 안전을 상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철화물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증진시민위는 20일 성명서를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전을 상징해 의결하려고 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위는 “해당 안전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변은진 기자

전·현직 8명 떠나보낸 날 도박한 화순군 공무원들

합동 추모식 참석 후 건설사 관계자와...전남경찰, 5명 검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임수된 당일 화순군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도박을 하다 붙잡혔다.

2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화순 모처에서 화순군 공무원 4명과 지역 건설사 관계자 A씨가 돈을 걸고 하투를 치던 현장을 적발했다. 공무원 4명은 모두 6급 이상 간부급이었으며, 판돈은 6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보 등을 입수해 임의의 수사에 나섰다. 임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대목에서 이들이 도박을 주기적으로 해왔을 가능성과 더불어 일각에선 A씨가 함께 도박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잃어주는 ‘집대성’이 아니었겠냐는 관측도 나와 향후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조

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각도 수사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적발된 공무원 중 대부분은 도박을 하기 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에 다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화순군에선 지역민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4명은 화순군청 현직, 또 다른 4명은 퇴직 공무원이었다. /안재영 기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정부·지자체·기관 합동...“아픔 치유·일상 복귀 최선”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

지자체,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국제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조직 구성은 기획총괄과, 피해보상

지원과, 유가족지원과다.

박정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